

진천, 충북 유일 '노인 의료·돌봄' 지원

국비 27억 받아 2025년까지 추진... 건강한 노후 실현

진천군이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노인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 공모가 진행됐고 1차 서면,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12곳의 시범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2019년 도부터 운영해 온 진천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큰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진천군은 찾아가는 통합간호센터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돌봄 '거점돌봄센터 및 동네복지사제도', 지역 사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사회적 농업을 통한 돌봄서비스 '생거진천케어-팜(carefarm)'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된 독자적인 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재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생거진천형 노인 통합지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천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Jincheon)'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음성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장애인 돌기 카페 '바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음성군, 장애인 자립 위한 카페 '바하' 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실현

음성군이 운영 중인 음성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카페 '바하(바람직한 하루)' 개소식이 지난 9일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병욱 음성

군수를 비롯해 안해성 음성군의 회 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정윤미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제

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음성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층 공간에 장소를 선정하고 무상임대료 장애인단체가 카페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카페 바하는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가 운영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인테리어 등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일반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2명 고용해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이 고개를 대상으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실현을 돕게 된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음성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장애인단체 운영 카페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어르신들 걷게 하는 희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제천시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지원은 만 60세 이상자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

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각 하나를 받을 경우 대상이 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양

쪽 240만원) 수술비다.

신청은 진단서(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방문건강팀(☎043-64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제천시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년간 교육비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시는 올해 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평생학습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사업이다.

시는 올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한다.

특화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장애인평생학습 'Together'동행 사업 일환으로 '술가락 우드 난타(난타악기)', '보치아(boccia)'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어디서든 누구든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한 장애인권(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장애인평생

학습 강사의 활동전문 역량강화를 병행해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청주시-오름, 소외계층 건강증진 협약

저소득층 청소년·청년대상 12개 지점 시설 이용권 지원



청주시 기반인 '휘트니스 오름'이 지난 8일 저소득 청소년·청년 건강 증진 업무 협약을 했다.(왼쪽 두 번째부터 정인수 오름 대표와 이범석 시장)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달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명단을 휘트니스 '오름'에 제공할 계획이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휘트니스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정인수 대표는 "건강과 체력은 성장을 위한 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순덕 복지정책과장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적은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휘트니스센터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표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휘트니스 '오름(대표 정인수)'과 저소득 청소년 및 청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정인수 휘트니스 '오름' 대표 등 주요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휘트니스 '오름'은 연간 500여명에게 휘트니스 오름 12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충주시, 치매노인 실종예방 총력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충주시가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치매노인 실종예방 서비스의 일환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대상자가 단말기를 착용하고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치매 환자의 위치 확인과 간단한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 환자가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치매노인에게 지급되는 배회감지기.

충주시치매안심센터는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치매환자의 실종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회감지기 신청기준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로,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는 자, 본인 및 보호자가 배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배회감지기 신청은 충주시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치매안심센터(☎043-850-17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고위험군의 실종 예방을 위해 고유번호 배회 인식표 나눔, 지문 사진등록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양군,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생활지원사

품안애티 나눔 밀반찬 지원 사업에 참여



단양읍 지역 어르신을 담당하는 13명의 생활지원사들이 품안애티 나눔 밀반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단양읍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

지원사들의 봉사 활동이 지역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말벗 등의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단양읍 지역 어르신을 담당하는 13명의 생활지원사들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지난해 8월부터 월 1회 품안애티 나눔 밀반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품안애티 나눔 밀반찬 지원사업은 매주 수요일 16개 업체에서 밀반찬을 후원받아 관내 취약계층 32세대에 배송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다.

"마이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유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햇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별류		기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행복마을지킴이' 위촉 및 협약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옥천군은 지난 7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마을 지킴이' 위촉·협약식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협약식에는 기관·단체를 대표해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에 옥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 등 총 15개 단체와 개인 참여자를 포함해 1,904명의 행복지킴이를 선발했다.

'행복마을 지킴이'는 복지 위기가 예상되는 가구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연계해 함께 방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앞으로 이들은 4년 동안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이웃을 세밀하게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추진할 예



옥천군은 지난 7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 옥천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마을 지킴이' 위촉·협약식을 진행했다.

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 곳곳에

서 위기 가정들을 찾아내 사회안정망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보행 약자 편리한 경사로 설치사업 지원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사회참여 기회 확대

옥천군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500만원을 들여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10곳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올해는 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행 약자의 접근

권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게 군의 생각이다.

곽명영 군 주민복지과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더 꼼꼼하게 신경쓰겠다"고 했다.



옥천군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설치한 경사로.

괴산군, 3월부터 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확대 시행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

괴산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지역 내 영유아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군은 출생아 수 감소와 육아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역적 한계 속에서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 어린이집 부모모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사업'은 먼저 소아과가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내 거주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과 진료에 한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로 영유아 1인당 월 5만원, 연 최대 40만원(연 8회) 지원하던 것을 3월부터 연 최대 60만원(연 12회) 지원한다.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은 상대적으로 급·간식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가정양육 아동에게 유기농 푸드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기농 푸드꾸러미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과일 등 기본으로 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성해 친환경 유기농업군의 장점을 살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확대해 연간 72만원 어치의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꾸러미를 지원받게 된다.

유기농산물은 전용 홈페이지(waseeu.com)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부모모담금 지원'은 생애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경우 축하금

10만원,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의 어린이집 이용시 자부담 비용을 분기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것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체감도를 향상하고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정영훈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와 부모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통해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개선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동서비스반 운영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수선 서비스 제공



영동군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기동서비스반이 취약계층 가정의 세면대 수리 및 기타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영동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동서비스반이 올해도 우리동네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본격 나섰다.

기동서비스반은 공공시설물이나

자체적으로 문제처리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영동군의 지원을 받아 영동군자원봉사센터 5개 자원봉사단체(감나무봉사단, 어울리봉

사단, 연꽃봉사단, 한국가스기술공사충청지사 남부사업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옥천지사) 3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양강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대 등을 수리하며 지역사회의 특별한 소통을 시작했다.

해당 가정은 탈락된 세면대를 의자에 임시 거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경제 여건상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기동서비스반은 현장에 직접 나가 세면대를 단단히 고정해 주고 기타 불편사항을 말씀해 해결했다.

이 기동서비스반은 공공시설물 사용 또는 주거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신청하면 기동서비스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료비 15만원 이내 부분도배, 방충망, 전기, 수도, 설비 등의 소규모 수리에 대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추진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학기 중 토·일·공휴일 1일 1식 8,000원 급식 지원

증평군이 행복 온(ON)돌봄 추진을 위해 기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청기를 맞아 누락된 아동급식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증평군·학교·마을이장 등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동급식 사업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은 물론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이웃과 주변에 보호자의 부재나 사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결식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학교 담임교사·동네 이장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경우 추천서에 의한 아동급식 신청자로 접수돼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아동급식 대상 발굴에 힘쓰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포털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현재 아동 급식 대상자는 243명으로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는 폼카

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 1일 1식 8,000원의 급식을 지원받는다.

아동급식 가맹점은 한식 57개소, 중식 13개소, 편의점 44개소 등 총 175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가맹점 모집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급식 제공을 위해 가맹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행복 온(ON)돌봄 사업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전인구 및 생활권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실시

2개월마다 1회 이상·288개 경로당 42명 의료진 투입

보은군은 노년층의 생활터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파악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등 모두 22개 보건기관에서 42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추진하며, 군내 288개 경로당에 주치의가 2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암환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군은 마을별 건강위험요인과 건강 문제 파악을 위해 군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마을별 건강 문제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역주민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영양 등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식습관 개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건강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가를 매칭한 건강교육도 같이 진행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000만원

저소득층은 일정수준 우대금리 적용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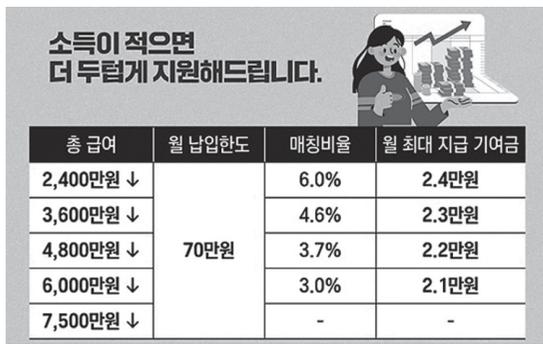
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줬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이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



청년도약계좌 매칭구조

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

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절약

청년·저소득층 혜택 강화,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평균 1만3,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2022년도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마일리

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 등 총 1만3,369원을 아껴 월평균 대중교통 지출액(6만 2,716원)의 21.3%를 절약했다.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마일리지 1만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등 월평균 1만7,657원을 아껴 2021년(1만5,571원)보다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으며 이 기간 저소득층 가입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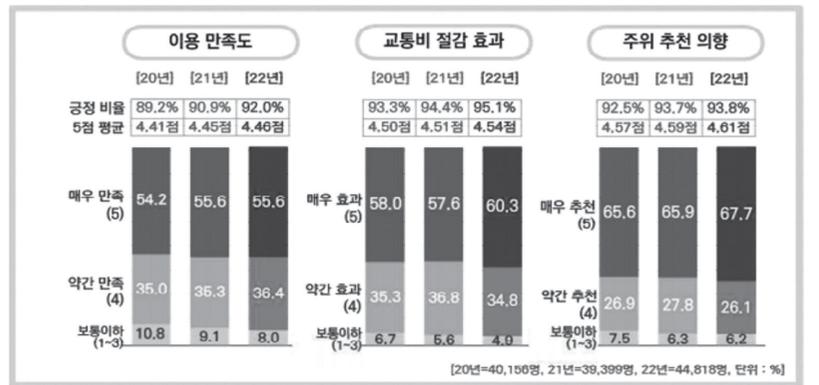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12월 29만명에서 2022년 12

월 48만 7000명, 올해 3월 53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돼 현재 전국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횟수는 월평균 39.6회로 2021년 대비 0.7회 증가했으며 이용자 연령대는 20대(40%)와 30대(34%)가 많았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2.0%가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답했다. 95.1%는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 안정성과 실행속도, 조회·정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등 비교

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내달부터 실시...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된 권역별 발달장

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일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

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

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2,000원 지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

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

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 지원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

만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환급 비율 20%로 확대... 복지 할인가구 약 350만명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 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약 3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 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용자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도 이러한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1~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 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외제 구역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재원(139.2억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청주가경노인복지관, 'ICT복합문화공간' 개소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지난 달 27일 충청북도 최초로 복지관 내 ICT복합문화공간 'ICT사랑방'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보통신기술로 지역사회 노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지난 달 27일 충청북도 최초로 복지관 내 ICT복합문화공간 'ICT사랑방'을 마련하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CT사랑방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이 ICT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청주시와 SK하이닉스(대

표 박정호·곽노정의 후원과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 주관으로 마련됐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1층에 위치한 ICT 사랑방은 정보누리, 건강누리, 게임누리, 창작누리, 카페누리 등 5개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공간 '정보누리',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공간 '건강누리', VR/헤드피터블 등을 체험하는 오락공간 '게임누리',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누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키오스크와 안마의자를 활용한 건강과 여가문화공간 '카페누리'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생활속 ICT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제공, ICT를 기반으로 체계

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SK하이닉스 이일우 부사장, 하트-하트재단 장진아 사무총장, (사)충청노인복지개발회 남기민 회장 등이 참석했고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김현숙 관장은 "공간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을 창의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어게인~청춘 대학' 첫 개강식을 문광면에서 개최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어게인~청춘 대학' 개강

건강과 여가 강좌, 문화체육 등 체험활동 구성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은 지난 10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어게인~청춘 대학' 첫 개강식을 문광면에서 개최했다. 괴산군에서 노인복지관에 새롭게 위탁한 사업인 '어게인~청춘 대학'은 맞춤형 어르신들의 청춘을 되찾기 위해 아낌하게 준비

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복지관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리가 멀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과 노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게인~청춘 대학'은 복지관이 있는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희망 조사를 통해 6개면이 선정됐으며, 그 외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포함될 시니어아카데미까지 총 7개 읍·면에서 추진된다. 이날 문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좌안내를 시작으로 한국힐링교육센터 진현미 강사와 함께 참여자들이 서로 어울려 소통의 시간을 갖는 행복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청주시가족센터, 통·번역 위한 '글로벌소통리더' 양성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통·번역 자원봉사단 '글로벌소통리더'를 운영하고 있다. 10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15명이 지역사회 외국인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경찰서, 소방서, 초등학교 등 관공서와 다문화 가정,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을 비롯한 체류 외국인의 언어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12개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태국어·네팔어·크메르어(캄보디아)·파갈로그어(필리핀)·버마어(미얀마) 통·번역



청주시가족센터는 정확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휘, 문법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서비스를 지원한다. 글로벌소통리더는 2019년 7월, 역량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선별하여 5개월간 통·번역 이론 교육, 한국어교육, 법률·의료 분

야의 지식 교육 등 총 55시간의 통·번역사 양성 교육을 운영해 총 10개국 18명의 통·번역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자원봉사

단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충청북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체류 외국인인 3만6,04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사례관리자, 이용자 외 국인 혹은 결혼이주민(귀화자 등)과의 접촉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청주시가족센터는 글로벌소통리더의 활동 영역을 공공기관, 병·의원에서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중으로 통·번역 자원봉사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자원봉사단 글로벌소통리더의 통·번역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하며, 청주시가족센터 가족생활지원과(☎043-263-1818)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아동복지협회, 아동양육시설 대학생에 장학금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후원... 12명에 200만원씩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지난 17일 충북아동양육시설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충북아동복지시설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

현숙)의 충북아동양육시설 대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은 신성종합건축

사사무소(주)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여 성실히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있는 12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전달됐다. 권현숙 회장은 "시설아동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날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우리 협회도 시설아동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고 미래의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천복지재단, 맞춤형 노인주거지원 '디자인 하우스'



(재)제천복지재단과 직공장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회원들이 화산동 노인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해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제천복지재단(이사장 유용식)이 지난 7일 화산동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디자인 하우스'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실내디자인 전문가

와 복지전문가로 사업단을 구축해 노인 세대의 신체기능과 행동패턴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직공장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회장 박경배)와 MOU를 맺고 협업했다. 화산동행정복지센터가 노후 지붕 부식과 저장 강박으로 생활환경에 제약받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추천하고 복지재단과 직공장협의회가 2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수리, 안전장치 설치 등 맞춤형 주거 공간을 지원했다. 유용식 이사장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군치매안심센터, '웃음꽃 피오' 활용 인지강화 나서

'치매안심 로봇' 도입

단양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임은주)가 AI 로봇 '웃음꽃 피오'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안과 강의 등 기존 인지활동에서 벗어나 ICT 기반의 AI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인지훈련으로 운영된다. IADL(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기능을 증가시켜 어르신의 긍정적인 정서 자극, 우울감 개선, 자



단양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 로봇 피오를 도입해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존감 향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치매 안전망 역할 강화 필

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군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진행될 방침이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장애인의 평등한 삶 실현’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러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중증·장애아동 등 보다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및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2026년 본사업 시행)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품질·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 나간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건강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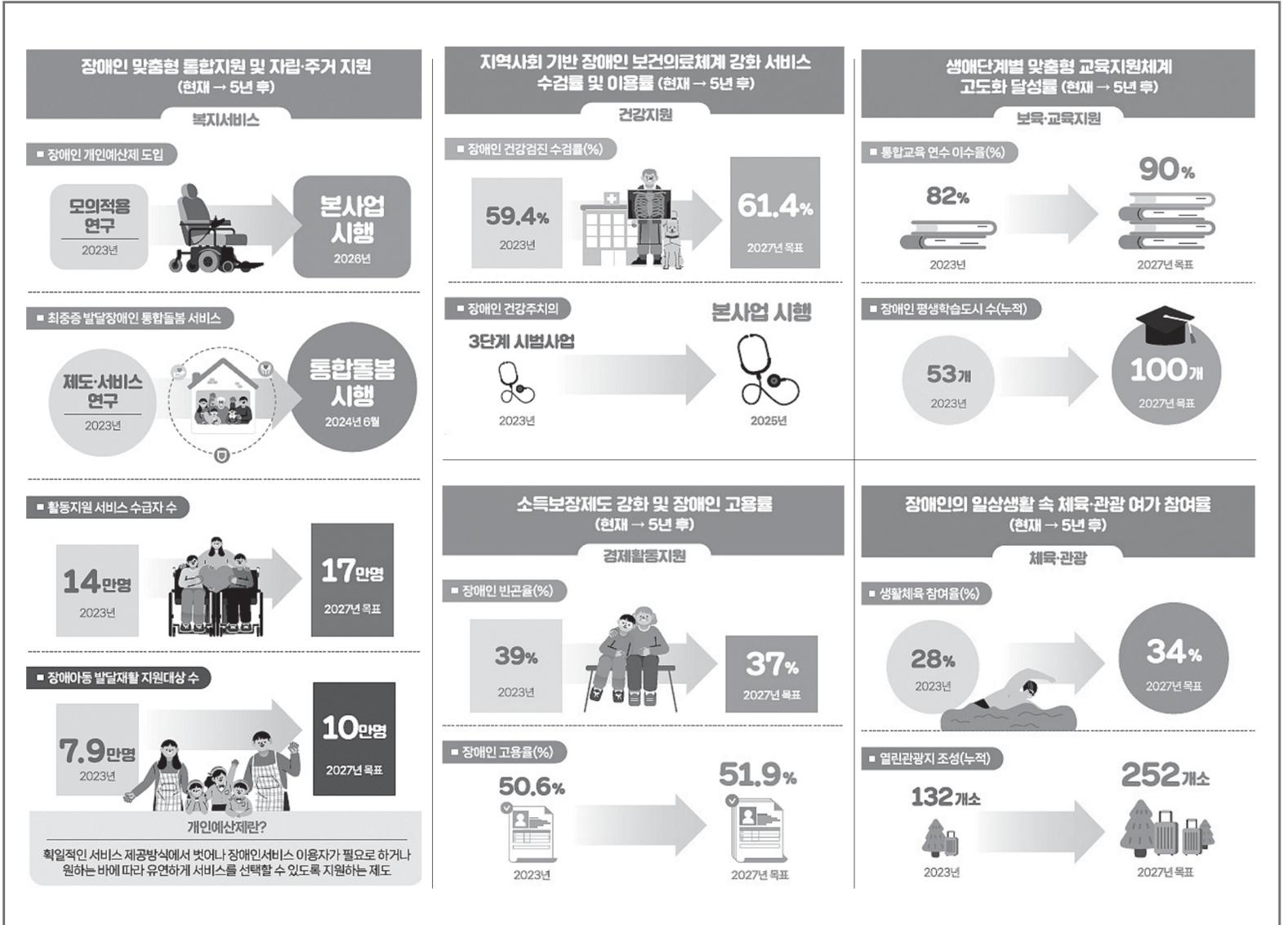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증중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인건강 보건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인건강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확대, 장애인치과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보육·교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



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계획’ 발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등 확대

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복지수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교육을 내실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제활동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 명단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제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체육·관광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하여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2027년 13개소 목표)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예술감독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품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편의·안전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였고,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권익증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홍보,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정책기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하며,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중요성

복지포럼

365돌봄센터를 아시나요?



김 준 수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대학 캠퍼스의 새봄은 첫 입학한 신입생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분주한 이동 속에서도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하던 시기와 사뭇 달라진 캠퍼스 분위기에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기대가 되었고, 낯선 수업방식은 모두에게 적응하기 힘들었고 적잖은 피해를 겪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역량 성취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중 새내기 시절이 온데간데없이 증발한 코로나 학년(20학년~21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은 더 어려웠고, 사회복지전공에 대한 흥미와 기대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것이 단순한 이론을 배우고 지식, 기술을 터득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이를 적용하는 실천적 지혜, 경험, 태도와 가치 등 복합적 요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함을 사회복지사 선배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엄격하게 다루고 자원봉사 경험을 쌓도록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중간관리자 후배와 대화 속에서 "요즘은 신입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과거 채용공고 하면 많게는 50:1, 30:1의 채용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20:1, 10: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적합한 사람 찾기가 여간 힘이 든다"라는 의미였다.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곳은 찾기 힘들고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마다 쏟아지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대학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사회복지사 선배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알다시피 사회복지서비스 양적 확대,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사 배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현장에서 적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적어도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 기술과 실무적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가치와 태도가 채용하는 기관과 적합해

야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은 이론,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오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교과 방식이기 때문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이론, 지식, 기술 중심의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행정 실무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장의 특성상 이를 기본능력이라고 전제하고 채용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싶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현장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기관의 특성도 파악하며, 행정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실습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도 쉽지 않았다. 그나마 있던 실무를 익힐 기회가 크게 줄어들어 아쉬움이 더 커졌다.

이제 코로나 학년이 졸업하고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텐데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계속 회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엄지엄지만 준비된 사회복지사를 키워내는 일을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이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현재 대학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중심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제

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등 PBL,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방식의 학습은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연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여 예비 사회복지사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사정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지혜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실천 역량과 행정 실무 역량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참여가 일선 업무와 병행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은 잘 안다. 더욱이 참여의 의의가 있어도 최고 의사결정자의 결심과 기관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선배인 우리도 우리 선배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 이제 내리사랑이 필요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리사랑 실천에 마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뜻있는 사회복지사와 예비 사회복지사의 멘토링 방식의 직무수행 중심 인턴형, 직무수행과 직무교육 병행을 하는 훈련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고려해 본다면 의미 있는 참여가 되리라 기대한다.



박 준 호

365돌봄센터장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에는 365돌봄센터가 있다.

365돌봄센터는 2019년에 마련된 장애인 전문의 단기거주시설로써,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상상의 이유 발생 시 365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간 30일(720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평일, 주말, 법정공휴일, 명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이다.

운영방식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지부이며, 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위치해있다.

통계청 2022년 4월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4만명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2년 12월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약 5,400여명이다.

365돌봄센터에는 주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라면 지체장애를 포함한 15가지 모든 장애유형과 나이, 연령, 종교 등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전화를 통해 상담예약이 가능하고, 초기상담 및 계약, 이용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유형으로는 긴급입소와 일반입소가 있다. 긴급입소는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이다. 일반입소는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예를 들면 보호자의 여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고, 1일 3만원의 실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기초수급대상자는 50% 감면된다. 이용료에 프로그램 활동, 식비, 간식비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이용 장애인이 5시간을 이용한다면 식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포함하여 5,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하는 장애인이 최대한 금전적 부담을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청과 365돌봄센터가 노력하고 있다.

365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통 08시 이후로 자유롭게 등원하

고, 하원도 자유롭다. 등원과 하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장애인의 부모와 장애인의 가정, 직장, 학교, 여가생활 등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중이다.

장애인은 부모 차량, 장애인 활동지원사 차량,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등원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사진과 차량 번호 사진 촬영을 통해 직원과 장애인의 부모 등과 수시로 공유한다.

365돌봄센터로 자녀를 안전하고 기쁘게 맡길 수 있도록, 부모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등원하는 장애인에 프로그램 참여, 외부 활동 참여, 식사 및 간식 참여 등 전문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센터명에 맞춰서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므로 늘 장애인이 어떤 시간대에 입소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새벽에 장애인이 입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맞이하는 자세로 근무 중이다.

2021년 기준 장애인과 직원의 비율이 2.5:1이었다면, 2022년에 2.5:2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조금 더 맞춤형, 전문적으로 완화됐다. 장애인이 10명 이라면 직원은 8명으로 직원은 장애인에게 조금 더 가깝게, 상황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65돌봄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심리재활(야외활동, 생일파티 등), 교육재활(인권교육, 미술과 음악활동, 소방안전교육 등), 건강생활지원(보러, 농구 등), 영양급식서비스(1일 3회 식사지원, 간식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특히, 야외활동의 경우 원하는 장소 욕구 파악을 하여 상담신청, 문암생태공원, 유기농마케팅센터, 대청댐 등 주 2회 이상 우리 지역 명소를 통해 힐링을 한다.

365돌봄센터의 발전을 위해 후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043-221-3650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365돌봄센터의 '행복주주'가 되어, 정기·일시·물품후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2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365돌봄센터를 찾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지부'라고 법인 검색을 하면 본 센터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곧 다가 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약 4번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주시를 포함하여 충북의 사회복지사와 충북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모두가 만날 때마다 기쁘게 웃으며, 행복한 서비스를 주고받길 염원한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의 이웃 북한이탈주민



문 기 현

충북하나센터 대리

충북하나센터는 통일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하나원' 수료 후 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청주·충주시 두 지역에서 각각 중·남부권, 북부권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3만3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중 충북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도 1398명에 달한다. 우리는 생활 속의 많은 영역에서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하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충북하나센터에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공공기관,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 흔히들 말하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자주 가는 마용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며 겪게 되는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혹은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없음(80.5%)'으로 응

답하여 이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있음(19.5%)'으로 응답한 인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이 차별 혹은 무시를 당한 이유는 '말투나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인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75%)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고,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식음부담 증가 등)을 가지고 있어서(44.2%)'가 두 번째로 높게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이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20.4%)', '언론의 북한체제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영향(15.4%)',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11.6%)' 등의 이유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 A씨는 직장 동료와의 대화 중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아 "나는 조선족입니다", "나는 그냥 작은 시골마을 출신입니다"라고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주변에도 당당하게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출신을 밝히는 것 자

체가 두려웠다고 한다. 이렇듯 여전히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반복되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북한이탈주민을 미래의 통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온 작은 통일로서 각각 문화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갖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훗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앞장서서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의 통일 사회를 위한 사전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필자를 포함한 전국의 하나센터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저는 3개월전 지인에
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두었
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며 변제
를 독촉하자 곧 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 중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변환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채권자로 하여
금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절차입니다. 채권
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
청서를 제출하고, 통상의 재판과 달리 채권
자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
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
차로 전환됩니다. 이에 반하여 소액사건심판
은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 여부
를 결정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
행권고결정정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2주
이내의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
답자의 경우 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소액
소송도 가능하나,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인사동정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 회장 손광영 / 2월11일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
▷ 회장 이민성 / 3월1일자
- 충북시민재단
▷ 사무처장 신성철 / 3월13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내역(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
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한부모·자
립지원센터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
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
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 (☎
1577-3053)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
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
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희망나눔주주연대, 2023년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3년 안내시까지
- 사업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소득기
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기
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의료비(병원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의료비 우선 지원)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중 택1(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02-3789-2555
- 참고: <https://www.hopeon.or.kr/>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2023년 희망동지 위
기가정 긴급지원사업(4차년도) 안내]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
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
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아동 나이 만 0세~만 24
세)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
육비, 심리정서 치료비
- 모집일정: 상시모집(매달 일정에 따른
신청접수)
- 신청 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개인신청 불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hope.kfhi.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회 대한민국 나
눔국민대상(희망멘토링 분야) 유공자 추천 안
내]

- 추천대상: 개인(국민 누구나) 또는 단체
(기업)
- 공모내용: 개인(개인의 멘토링 활동
관련 공적)/단체(현재 운영중이거나 과거
가 운영하였던 멘토링 사업(프로그램) 공
적
- 포상규모: 대통령 표창(1점), 국무총리
표창(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10점), 민간
단체장표창(7점)
- 추천기한: 2023.4.28.(금) 18:00
- 결과발표 및 시상: 2023년 10~11월
- 추천방법: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 문의: 02-2077-3959
- 참고: <https://www.bokji.net/>

[주식회사 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안내]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
면 제한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
연 접수
- 선정방법: 매월 10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 참고: www.coaddoor.com

[푸르메재단, 2023 SPC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
소년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의료비, 보조기
구, 특기적성, 정형신발 등
- 지원금액: 지원내용별 상이
- 접수기간: 지원내용별 상이
- 참고: <https://purme.org/>

[함께하는사랑방, LG트윈스와 함께하는 사랑
의 티켓 나눔]

- 신청자격: LG트윈스 홈경기 관람이 가
능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또는 아동시설
(보호자 동반 가능)
- 신청일: 4/26(SSG), 5/17(KT),
6/14(삼성), 7/12(한화), 8/23(롯데), 9월(미
정)
- 지원내용: LG트윈스 홈경기티켓, 간단
한 간식(피자&치킨) 및 음료 제공
- 모집인원: 경기당 선착순 100명
- 신청방식: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문의: 070-8891-0807
- 참고: <https://www.withgo.or.kr/>

[KT&G복지재단, 2023년 행복가정학습지원사
업(아동)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아동 청소년 사업을 수행중
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수급/차
상위/일반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만7
세이상~만18세이하)
- ※ 단,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신청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학습용품 구
입비 10만원 지원 (1회) 학습용품, 문제집, 일반
도서, 교복, 책가방 등
- 지원절차: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
한 온라인 사연접수→월 말일 50명 선정발
표 및 선정기관으로 후원금 입금(선정 후 2
주 이내)→담당자 소감문 작성 및 물품 수령
증 원본, 영수증 사본 우편발송 (지원 후 1개
월 이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진
행
- 문의: 02-563-4459

자원 봉사자 모집

- ▶ 대학생 놀이지원단 1기 모집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시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53-4493
- ▶ 카카오톡 가입홍보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16-9810
-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843-1432
- ▶ 요양원 여가프로그램
관리센터: 제천실버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645-7955

- ▶ 체력단련실 관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75-7411
- ▶ 치매예방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834-3411
- ▶ 청춘베이커리 활동
관리센터: 충주시노인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857-8683
- ▶ 풋살 프로그램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85-0102

- ▶ 마을기차단 활동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66-4761
 - ▶ 엽서 작성 및 우편 포장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3.1~4.30
전화번호: 043-219-0199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동행봉사단, 이머전시 푸드팩 준비작업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동행봉사단(단장 심
재훈)은 지난달 21일 세종시에 위
치한 전국기부식품등 중앙물류
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전하지
는 이머전시 푸드
팩 준비작업 봉사
활동을 했다.
동행봉사단은
지난해 11월 충
북사회복지협의
회 지역사회봉사
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심재훈 단장은 “우리 주변을 돌
러보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이웃이 많다. 이 중 복지사각지대
에 놓여있어 끼니도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물품을
직접 전달드리지 못하는 대신 이
렇게라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
면 좋겠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방안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
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
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
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
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
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3.20. (월)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3.20.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 일반 약국은 의식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

3.20.부터 '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순차적 재개*

* 현재 재개 준비중으로 '23.3.20.부터 준비되는 항로부터 재개 (4~7월 잠정)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 마스크 착용 권고



행정안전부

복지/만/평

업무분장

이창신 www.bokmani.com

